

**<칠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신 산업 성장세 지속될 듯**

1. 칠레의 통신 시장 개관

□ 중남미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성장률 보유

○ 칠레는 중남미 최고의 IT 및 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중남미 역내 인터넷광역망 보급률 1위(9.4%), 휴대폰 보급률 3위(88.3%) (이상 2008년 기준), E-readiness 국가 순위(2009년)<sup>1)</sup> 32위 등을 기록함.

- 전통적인 유선통신 보급률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광랜 등 고급 IT 기술의 도입 정도는 칠레, 아르헨티나 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됨.

**<표 1> 중남미 주요국 정보통신 보급률 비교(2008년)**

국 가	종 류	유선 전화		휴대폰		광랜 가입자수		인터넷 사용자수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가입자수 (천 명)	보급률 (%)	가입자수 (백 만명)	보급률 (%)
브라질		40.45	21.0	152.44	78.9	10,197	5.3	50.1	26.0
멕시코		20.54	19.2	78.46	74.1	6,900	6.5	24.7	24.0
아르헨티나		9.89	24.9	43.82	110.3	3,444	8.7	20.0	50.3
콜롬비아		7.91	16.5	41.36	85.7	1,982	4.1	17.0	35.4
베네수엘라		5.9	21.2	28.21	101.0	1,277	4.4	6.7	24.2
칠레		3.45	20.5	14.80	88.3	1,574	9.4	6.0	36.0
페루		2.81	9.7	18.45	63.3	742	2.5	9.4	32.4

자료: EIU Viewswire(2009), Paul Budde Communications(2009)

1) EIU는 매년 주요 70개국을 대상으로 IT 발전 수준을 수치화하여 국가 순위를 발표. 칠레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중남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가 그 뒤를 이어 40위를 기록하였음.

- 칠레 통신시장은 1988년 독점 통신 공기업인 *Compania de Telecomunicaciones de Chile(CTC)*의 민영화를 기점으로 발전하였으며, 과독점 방지 조항, 정부 개입 배제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통신부문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경쟁을 위한 시장기반 형성에 앞장섰다는 것이 특징임.
- 수년간의 경제호황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시장내 경쟁적인 가격 인하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칠레의 통신시장은 유무선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2008년간 산업에 대한 투자가 90%이상 증가하였음.
  - 다만, 통신 보급률 확대와 업계내 경쟁 심화로 유무선 통신의 매출 증가율은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임.

**<표 2> 산업 관련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4	2005	2006	2007 <sup>e</sup>	2008 <sup>e</sup>
GDP (억 달러)	957	1,183	1,468	1,639	1,695
인구당 GDP (달러)	5,943	7,269	8,931	9,873	10,108
총 가구수 (1,000 가구)	4,317	4,403	4,488	4,571	4,651
연소득 5,000>10,000달러 가구 비율 (%)	28.6	28.4	28.1	27.8	27.3
연소득 10,000>50,000달러 가구 비율 (%)	33.2	36.8	39.5	41.5	44.0
연소득 50,000달러 이상인 가구 비율 (%)	2.8	3.5	4.0	4.4	5.1
통신시장 투자 규모 (억 달러)	5.4	7.5	8.8	9.8	10.5
통신시장 투자 연성장률 (%)	55.3	38.7	18.0	10.7	6.9
유선 통신 매출 연성장률 (%)	1.2	2.7	0.5	-0.9	0.3
무선 통신 매출 연성장률 (%)	16.5	12.0	14.9	5.2	-2.2

자료 : EIU Viewswire(2009)

## □ 최근 통신시장 성장세는 휴대폰 및 인터넷이 주도

- 2008년말 기준 칠레의 유선전화 가입자수는 345만 명으로 보급률이 20.5% 수준에 그친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1,480만명으로 88.3%의 보급률을 기록함.
  - 유선전화 보급률은 2001년 22.3%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매년 소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무선전화 가입자 증가율은 2001년~2008년간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이룩하는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인터넷은 모뎀에서 DSL로의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2008.12 월말 현재 인터넷 사용자수는 총 인구의 36%에 해당되는 6백만명으로 추산됨.

## □ 통신비용은 중남미 국가 중 낮은 수준

- 칠레는 산업규제 완화 및 업계의 경쟁심화로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유무선 및 인터넷 사용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유선전화선의 월 평균 기본요금은 16.03 달러이며, 이는 칠레의 인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4.2%에 해당하여 멕시코, 브라질 등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인터넷 비용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663달러이며, VoIP 접속료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시장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08년 현재 모니터와 키보드를 포함한 512MB 데스크탑의 평균가는 2,599 달러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가처분소득대비로 비교할 경우 남미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최저 사양의 데스크탑은 400 달러부터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표 3> 주요 중남미 국가의 통신 요금 비교표**

단위 : US\$, %

구 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유선전화 통화료	0.105('07)	0.056('07)	0.029('07)	0.466('07)
유선전화 월기본료 (가처분소득대비)	16.03('07) (4.2%)	21.00('07) (8.5%)	5.15('07) (2.6%)	19.04('07) (5.0%)
이동전화 통화료	1.77('05)	1.76('06)	0.39('06)	0.625('06)
DSL 접속료	0.0('06)	0.0('06)	60.0('06)	319.9('06)
DSL 장비 연대여료	663.6('06)	1,990.8('06)	1,054('06)	1,090.8('06)
VoIP 접속료	0.063('07)	0.162('07)	0.096('07)	0.297('07)
개인용 PC 가격 평균 (가처분소득대비)	2,599('08) (586.8%)	1,863('08) (635.7%)	1,825('08) (798.0%)	1,843('08) (460.1%)

자료: EIU Viewswire(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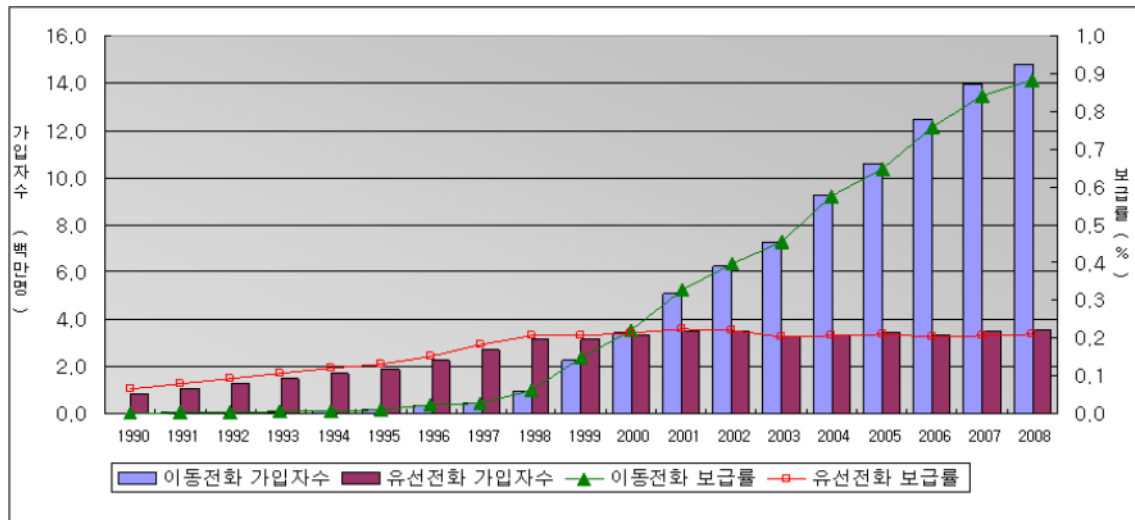
## 2. 최근의 시장 동향

### 가. 유선통신 시장 동향

#### □ 유선통신 요금자율화 도입 논의 중

- 칠레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2008년말 현재 20% 수준이며, 중남미 평균 보급률인 22%에 못미침.)
- 유선통신은 1998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가입자 수와 보급률에 있어 이동 전화에 추월당하였음.

<그림 1> 유·무선 전화 가입자수와 보급률 비교



자료: EIU Viewswire(2009)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 및 보급률 확대를 위해 요금자율화 제도 도입을 고려중임.

2)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8년 연간보고서 통계에 의하면, 2008년 중남미(카리브 포함) 지역의 평균 유선통신 보급률은 21.7%로, 가장 높은 국가는 버뮤다(89.5%), 가장 낮은 국가는 하이티(1.1%)이며, 칠레는 34개국 중 15위임.

- 요금 자율화<sup>3)</sup>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본요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이동전화요금과 같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서비스, 통화품질 등을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동 제도 시행시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칠레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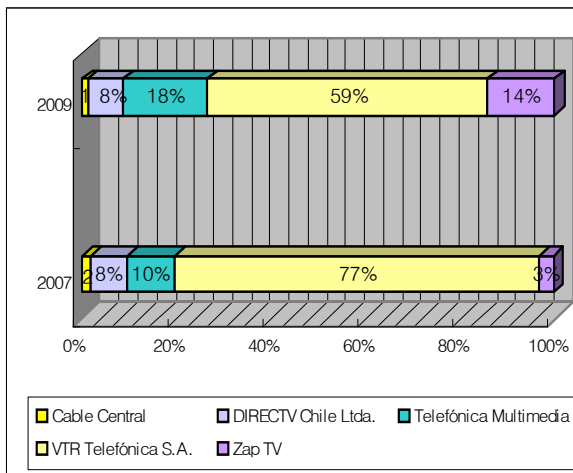
## □ 케이블 TV 패키지 상품 및 위성 TV 서비스 확산

- 케이블 TV는 인터넷, 전화 등과의 패키지 상품을 통한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분야임. 또한 케이블 TV에 비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위성 TV 서비스도 가입자수가 최근 수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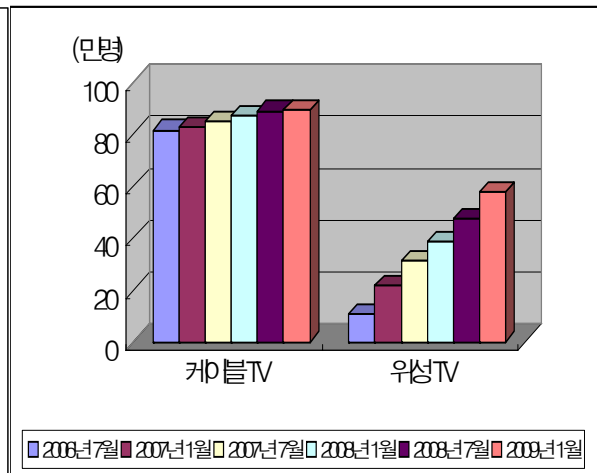
- 위성 TV 가입자수 : 10만명('06.7월) → 57만명('09.1월)<sup>4)</sup>

- TV 시장점유율 1위인 VTR社는 2006년 85%의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신규 진출기업인 Telefonica Multimedia社, Zap TV社 등의 선전으로 2009년 1월 현재 시장점유율이 59%로 낮아진 상황임.

<그림 2> TV 시장 점유율



<그림 3> 케이블 및 위성시장 가입자수



자료 : Subtel(칠레 통신청)

3) 현재 내부적으로 다음의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공방중임 : **찬성** - 대체제인 무선전화의 확산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유경쟁을 위해 요금자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반대** - 무선전화는 유선전화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이며, 유선 고유의 효용과 가격경쟁력이 있어 사용료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는 기본료 삭제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

4) 동기간 케이블 TV가입자수는 케이블 TV 81만명('06.7월) → 89만명('09.1월)임.

## 나. 이동통신 시장 동향

### □ 높은 가입률로 고급 사양 핸드폰 인기

- 칠레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중남미 최고 수준으로 2000년에 이미 유선 보급률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가입자수 기준으로 유선 보급률의 4.2배를 기록중임.
  - 2008말 이동통신 보급률은 88.3%를 달성했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90%대에 진입 후, 2013년 경에는 보급률이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동통신 수단의 빠른 보급과 함께 지난 몇 년간 경기호황이 낳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칠레의 휴대폰 시장은 최고급 사양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노키아, 삼성, LG, 소니, 에릭슨 등 세계 굴지의 휴대폰 브랜드가 이미 칠레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2008년 Apple社의 I-Phone과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이 가능한 다기능 휴대폰의 인기가 높았음.

### □ 주파수역 제한법 입법시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

- 2009년 1월 칠레 정부 입법부에서 제시한 주파수역(spectrum) 제한법이 통과될 경우 라디오, TV,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역이 제한되므로, 시장 과독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크고 작은 기업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 칠레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여러 통신 분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가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권 입찰 예정

- 2006년 칠레 통신청은 90MHz 스펙트럼의 3G 사업권의 입찰을 2007년 12월경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 당초 통신청은 신규 사업자에 20-30MHz, 기존 사업자에 50-10MHz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기관간 입장차이<sup>5)</sup>로 2008년 중순으로 한차례 미뤄졌던 3G 사업권 입찰을 다시 2009년으로 연기함.
- 시장내 과독점을 배제하려는 칠레 산업 법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현재 동 분야 진출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으로는 케이블 TV 업계의 VTR社와 유선전화 회사인 Telsur가 있음.
- 2008.9월 현재 칠레의 이동통신 기업은 Movistar, Entel PCS, Claro, Nextel Chile 등 4개 이며, 주로 GSM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됨.

**<표 4> 이동통신 기업과 통신 시스템**

기업명	기술 시스템	서비스 개시	가입자 수	전년대비
Movistar	GSM 1900	2003.4월	6,401,000	23.1%
	US TDMA800/1900	1997.2월	228,000	-73.2%
	WCDMA 1900	1999.12월	73,000	n/a
ENTEL PCS	GSM 1900	1998.3월	5,751,000	6.1%
	WCDMA 1900	2007.11월	100,000	n/a
Claro	CDMA 1900	1998.9월	752,000	-46.6%
	GSM 1900	2006.8월	2,021,000	75.3%
	WCDMA	2007.11월	14,000	n/a
Nextel Chile	iDEN	2006.12월	21,000	153.3%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2009)

5) 관련 기업들은 물론, 정부 기관간(Subtel, TDLC, 그리고 FNE-National Economic Prosecutor) 입장 차이가 있음 :  
 - FNE의 주장 : 60MHZ로 제한  
 - TDLC의 주장 : 기존 사업자도 90MHZ 입찰에 참여 가능하나,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서 입찰 실시해야 하며, 입찰전 휴대폰번호이동성 제도(Mobile Number Portability) 도입  
 - Subtel의 주장 : 입찰 단위 구분 및 MNP 도입등은 Subtel의 고유 권한임.

## 다. 인터넷 시장 동향

### □ 인터넷 시장의 꾸준한 성장 전망

○ 칠레의 인터넷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 2008년 칠레의 인터넷 보급률은 36.0%까지 증가하며 중남미 최고 수준을 자랑함.

- 또한 높은 소득수준 및 개방된 시장에 힘입어 2000년 처음 도입된 초고속 인터넷의 2008년 보급률은 전체 인구당 8.6%, 가구당 29.4%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중남미 최고 수준임.

**<표 5> 초고속 인터넷의 국가별 보급률**

단위: 천명, %

	국 가	2007	2008	전체인구 보급률	가구당 보급률
1	아르헨티나	2,557,000	3,444,000	31.4%	8.7%
2	칠 레	1,312,000	1,447,000	29.4%	8.6%
3	멕시코	4,545,000	6,900,000	21.8%	6.5%
4	브 라 질	7,718,000	10,197,000	18.0%	5.3%
5	베네수엘라	858,000	1,277,000	17.4%	4.4%
6	콜롬비아	1,207,000	1,982,000	18.8%	4.1%
7	페 루	589,000	742,000	10.5%	2.5%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s(2009)

### □ 컴퓨터 보급률 증가가 인터넷 확산의 주요 원인

- 칠레의 1인당 컴퓨터 보급률(2008년)은 34.1%로 브라질(32.7%), 아르헨티나(29.7%), 멕시코 (20.1%) 보다 높은 수준임.
- 컴퓨터는 분할 납부 제도의 발달과 수입 관세 면제로 인한 비용 인하로 판매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 PC 브랜드의 인기가 높음.



○ 칠레 정부는 10명의 학생당 1대의 노트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에도 학교와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과 2010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로 보급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t)와 EIU Pyramid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경 칠레의 컴퓨터 보급률은 53.8%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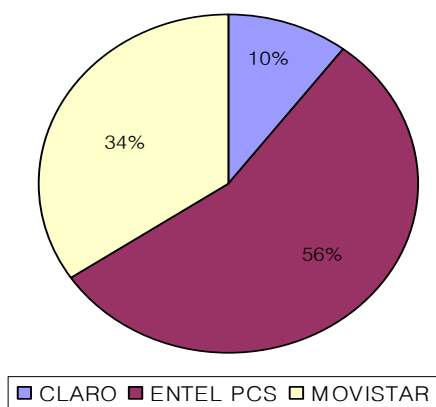
### □ 모바일 인터넷 접속 급증

○ 칠레 이동통신협회(Altelmo)가 최근 발표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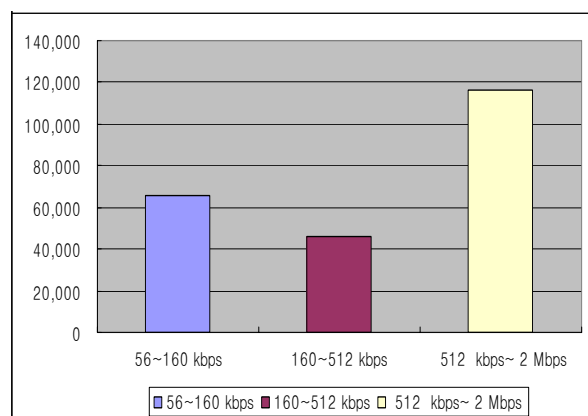
- Entel PCS, Movistar와 Claro의 보고에 따르면, M-인터넷 접속 회수는 2007년에 56,156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233,011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Altelmo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향후 몇 년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1년 M-인터넷 접속 수는 1,373,257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림 4> Mobile 인터넷 점유율



<그림 5> 접속 속도 (2008.12월)



자료 : Subtel(칠레 통신청)

### 3. 향후 전망

#### □ 이동통신 중심의 성장세 지속될 듯

- 2008년 미국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과 M-인터넷, M-TV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 도입에 성공하여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경기 침체로 선불제 휴대폰이 시장에서 다시 각광 받고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의 선전 덕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09년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총매출액이 감소될 전망이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Telefonica Chile CTC<sup>6)</sup>는 2009년 통신시장의 모든 부문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명함. (2009.6월, 로이터 통신)

#### □ 2009년에도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전망

- DSL와 WiMAX 등 유무선 인터넷망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3G 사업권 입찰 등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Telefonica Chile, VTR社, Entel 등 주요 통신기업들은 올해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Telefonica Chile는 전년과 같은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하이브리드 광랜망 설비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6) Telefonica Chile CTC의 2009년 1사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하였으나, DSL과 케이블 TV의 매출 호조로 유선통신 부문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 (2009.4월, Telegeography)

- VTR은 DSL망 설비 투자과 G3 휴대폰 사업권 등에 1.5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Entel사 역시 2009년 4.5억~5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농촌 지역에 대한 통신부문 투자 확대 기대

- 칠레의 높은 경제성장과 통신 산업의 부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빈부격차가 상존하고 있음.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통신망 접근성은 도심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편임.
- 정부는 도심과 농촌지역간 정보격차(Information Disparity)를 줄이기 위해,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칠레 정부는 Movistar社와 통신교량(Bridges of Communication) 설치 프로젝트(PPP형태)를 추진하여 2006년~2010년 4년간 농촌 지역에 8개의 통신 안테나를 보급할 예정이며, 칠레 남부 Los Rios주 인터넷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중임.
- 요약컨대, 칠레의 통신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 감소, 기업들의 투자 지연 등으로 소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나, 3G 입찰 개시, 농촌 통신개발 프로젝트,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투자 호재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재차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박현희(☎ 02-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mailto:sarapark@koreaexim.go.kr)

인턴행원 김혜정(☎ 02-3779-5651)